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

최완규(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정치학)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국가 성격을 비교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사회주의 국가를 당 - 국가체제(*party-state system*)¹⁾로 개념화할 것인가, 아니면 국가를 체제보다 우위 개념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모델스키(*George Modelski*)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사회주의 국가의 구

-
- 1) 당 - 국가체제란 용어는 공산주의 국가들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나치즘, 파시즘 및 이와 유사한 어떤 것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체제를 합리화하는 주장은, 부분들인 여러 정당들은 국가와 동일시될 수 없지만, 전체로서의 정당은 그 스스로를 국가와 일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전체는 그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한 공존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일정당은 국가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Giovanni Sartori, *Party and Party Systems : A Framework for Analysis*(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44.

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지배하는 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반면 공산당은 국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²⁾ 당-국가체제의 원형은 스탈린에 수립되었고 2차 대전 이후 수립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가 이 모델을 수용했다.

따라서 북한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국가체제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가를 당-국가체제보다 상위로 놓고 국가 성격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북한의 국가와 다른 사회주의 국가 간의 비교가 어려워진다. 사실 국가(state)를 체제(regime)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파악할 때의 북한의 국가는 베버(Max Weber)가 지정한 것처럼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독점권을 가진 인간공동체...”³⁾ 또는 무력의 합법적 독점을 바탕으로 제반 법률적·행정적 장치에 근거하여 특정 영토 내의 사회와 주민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를 행하며 영토 내의 타 조직들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국가가 자본주의체제인가 사회주의체제인가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분석은 국가 일반에 대한 추상적인 논의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의 국가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국가를 당-국가체제로 개념화하고 그 성격을 비교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 당-국가체제의 특수성 문제이다.⁴⁾ 주지하듯이 북한체제는 다른

2) George Modelski, *The Communist International System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III, pp. 126~132.

3) H. H. Gerth and C. Wright Mills(eds.),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p. 78.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형중, “북한정치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통일문제연구』

사회주의체제와 구별되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예컨대 주체사상(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기반을 둔 수령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제, 근대 세계에서는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족적 조합주의 국가 질서, 권력의 부자세습, 선군정치에 기초한 비정상적 국가기구, 자립노선에 기초한 인민동원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의 고수, 그리고 시민사회나 반체제적 대중 운동의 경험 부재 등 외견상 사회주의체제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북한적 현상’이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비교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북한체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곧 ‘북한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과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의 단순한 나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비교연구의 틀 속에 북한체제 연구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북한 사회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특수성의 이면에 있는 범사회주의적 현상의 의미를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국가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들, 특히 스탈린 치하의 소련 및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와 비교론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 국가 성격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규명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일련의 논의와 기존의 국가 성격에 관한 국내외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 국가 성격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분석한다.

구』, 제27호(1997) 참조.

2.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특성 : 비교 사회주의적 맥락

1)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전체주의) 체제

일찍이 레닌은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창안했다”⁵⁾고 반복해서 강조한 바 있다.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란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근간으로 하는 당 - 국가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국가(socialist state)다. 정치적 영역에서 볼 때, 사회주의 국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적 특성을 갖고 있다 ; 첫째, 하나의 통일정당 또는 사실상 소수의 자체 호선 엘리트에 의한 국가와 사회의 영구 지배, 둘째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그리고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교리에 기초한 유일한 가치체제의 수용, 셋째 전 정치 과정과 매스컴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 정당의 수중에 있는 관계로 자율적인 정치 또는 사회적 하위체제의 부재, 넷째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토대로 한 국가 조직 등이다. 경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으로서는 생산수단의 공적(국가) 소유와 계획경제를 들 수 있다.⁶⁾ 물론 이와 같은 특징은 각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주지하듯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회주의 국가의 원형은 소련이다. 1917년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이데올로기 수범체제로 하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었다.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체의 혁명(사회주의)투쟁 또는 스탈린의 소비에

5) C. J. Friedrich & Z. K.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second ed.(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5), p. 3.

6) Robert Furtak, *The Political Systems of Socialist State : An Introduction to Marxist-Leninist Regimes* (Brighton, Sussex : Wheatsheaf Books, 1986), pp. 6~7.

트화정책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들이 등장했다. 이들 중 중국, 유고슬라비아, 베트남은 자체의 무장(게릴라)혁명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했으며 동독과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에서는 스탈린의 소비에트화정책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했다. 소비에트화정책에 의해 형성된 국가의 성격은 대부분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다.

스탈린주의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 해석은 스탈린체제를 전체주의적 단일정당체제로 개념화시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으로서는 스탈린체제를 일인독재와 결합된 단일조직체제(mono-organizational society)내지 단일화된 국가유기체(unified state organism)로 개념화하는 것이다.⁷⁾ 콜라코브스키(Leszek Kolakowski)는 스탈린체제의 특징으로서 법률의 폐지(공적 문제의 통치절차라는 의미에서만 법률이 존속), 일인 독재, 통치의 보편적 원칙으로서의 감시제도, 전지전능한 이데올로기 등을 들고 있다.⁸⁾ 마르코비치(Mihailo Markovic)는 보다 구체적으로 스탈린주의의 필요 충분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⁹⁾

- ① 정치적 관료제 권력에 의한 부르주아 정치 권력에의 대체와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에 의한 사적 소유에의 대체를 초월해서는 발전될 수 없는 폭력적인 반자본주의 혁명의 수행.
- ② 혁명의 선도적 세력과 혁명 후 사회의 중추는 일석지주적이며 강

7) T. H. Rigby, "Stalinism and the Mono-Organizational Society", Robert Tucker(ed.), *Stalinism :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New York : W. W. Norton & Co. Inc., 1977), pp. 53~76.

8) Leszek Kolakowski, "Stalinism Versus Marxism? : Marxist Roots of Stalinism", Robert Tucker(ed.), *Stalinism :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pp. 287~290.

9) Mihailo Markovic, "Stalinism and Marxism", Robert Tucker(ed.), *Stalinism :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 pp. 299~300.

하게 훈련되고 엄격한 계서적 정당이며 이 정당이 모든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독점하고 여타 사회조직체를 단순한 매체로 전략 시킴.

- ③ 국가의 최우선적인 새로운 기능은 전 생산체제의 엄격한 관리 계획 및 모든 정치적 활동의 완전한 통제다. 국가는 공식적으로는 노동계급의 독재체제지만 현실적으로는 당 지도력 또는 유일 지도자에 의한 독재체제다.
- ④ 경제적 정치적 소외의 거의 모든 형태가 존재하는 집단적 복지 사회임.
- ⑤ 중앙집권적인 정치적 경제적 구조로 인하여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 민족들은 자주성이 부인되고 다수 민족의 지배를 계속 받음.
- ⑥ 모든 문화는 정치권에 종속되며 정당에 의해 엄격히 통제 감시 받음.

이러한 일련의 설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체제는 역시 전체주의체제와 가장 근접한 체제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여러 학자들이 스탈린주의적 증후군으로 지적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은 스탈린 치하에서는 스탈린주의로 불리어지지 않았다. 스탈린 당시의 공산주의 사회정치체제에 대한 통칭어로는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스탈린에 의해 공고화되었던 소련 사회주의체제는 히틀러의 나치 독재체제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재체제와 더불어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모델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전체주의 내지 전체주의 국가 개념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풍미했던 소련, 이태리, 독일 및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된 새로운

독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립된 것이다. 말하자면 전체주의 독재는 20세기 산업 사회에 적용된 독재정치, 즉 독재정치의 새로운 형태로서 현대의 정치적 및 기술적 조건하에서 전체주의자들의 의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통제체계이다. 전체주의 독재체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군을 지니고 있다.¹⁰⁾

첫째, 인간 존재의 모든 사활적 국면을 포함하는 공식이론체제로 구성된 정교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으며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수동적이라도 이 이데올로기를 고수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인류의 완벽한 최종 상태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상 형태를 투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이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현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기존 사회를 급격히 부정하는 데 기초를 둔 재림 예수적 요구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독재자 1인이 영도하고 전체 인구 중에서 비교적 소수의 남녀(10% 정도)로 구성되는 단일 대중정당을 가지며 이 당의 핵심분자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확실하게 헌신하며 이 이데올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당은 또한 계서적, 과두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부의 관료기구보다 상위에 있거나 완전히 혼합되어 있다.

셋째, 당과 비밀경찰의 통제를 통해 효력을 발휘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테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체계는 당간부들을 위해 당을 지원할 뿐 아니라 감시하며 정권의 명백한 '적'에 대해서는 물론 다소 자의적으로 선정한 계급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길을 보낸다. 비밀경찰의 테러나 당 주도의 사회적 압력은 근대 과학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특히 과학적 심리학을 한층 더 잘 이용한다.

넷째, 신문, 라디오, 영화와 같은 일체의 유효한 대중 전달 수단을

10) C. J. Friedrich & Z. K.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second ed., p. 22.

당과 정부의 수중에 장악하여 고도의 기술을 통해 거의 완벽하게 독점한다.

다섯째,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전투에 사용되는 일체의 유효한 무기를 독점한다.

여섯째, 대부분의 단체나 집단 활동을 형식적으로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체계 속에 관료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전체 경제를 중앙에서 통제, 지휘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군들은 흔히 ‘유기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로 얹히고 상호 보완하는 특성의 집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동양적 전체정이나 회랍의 폭군정 또는 유럽의 절대정이 전체주의 특징들을 한 두 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체주의 독재체제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한편 샤피로(Leonard Schapiro)는 전체주의의 여섯 가지 대표적 특징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전체주의적 현상은 여섯 가지 특징군 만큼 중요한 다른 요소, 즉 공식 이데올로기를 수반하는 세계 지배 이론과 대중 동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일체의 유효적 무기의 독점 현상은 전체주의체제에만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모든 정부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샤피로는 전체주의적 현상을 특징적 면모(contour of polity)와 기축(pillar)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¹¹⁾ 그는 여섯 가지 특징군에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 양자를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주의의 특징적 면모로서는 지도자, 법적 질서의 종속, 사적 도덕성의 통제, 지속적 동원과 대중적 지지에 기초한 정통성을 들 수 있다. 기축으로서의 이데올로기, 당, 교회, 국가와 사회 등 지배 수단을 들고

11) Leonard Schapiro, *Totalitarianism*(New York : Praeger, 1972), pp. 18~71.

있으며 전자 특히 지도자 개인을 지배 수단보다 훨씬 중시하고 있다. 즉, 전체주의체제의 세 가지 원형은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대중 운동에 의해 처음 형성되었고 이 대중 운동이 지배 엘리트와 당을 만들었다. 당은 단순한 지배의 수단인 것이다. 반면에 지도자는 만약 그가 없었다면 세 가지 원형 모두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이다. 지도자에 의해 영도되는 대중 정당을 전체주의의 핵심으로 보는 것은 수단을 전체주의의 특질로 혼동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언론 혹은 경제 수단에 대한 독점 역시 다른 것들과 구분되는 전체주의의 특징이지만 정당이나 경찰, 이데올로기 등은 지배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전체주의 국가는 일종의 ‘지도자 국가(Leader State)’¹²⁾인 셈이다. 즉, 전체주의체제는 본질적으로 지도자체제인 것이다. 기실 이 체제의 이데올로기도 지도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요컨대 전체주의체제에서 허용되는 독점적인 권력은 최고 지도자가 장악하고 있으며 당권력의 독점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사피로의 전체주의론은 독재자 개인의 비중을 다른 어떤 전체주의적 요소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탈린식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설명

12) 히틀러는 “총통 겸 제국 재상”이라는 직함을 힌덴부르크 사후에 취하였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권위는 헌법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총통의 권위가 국가나 당이 아니라 “국민의 통일된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이다. 그는 기존 국가제도를 통해서도 또 그것을 통하지 않고서도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다. 요컨대 히틀러는 갖가지 대립적인 권위, 즉 국가, 당, 친위대, 육군, 산업의 최고 조정자였으며 최종적으로는 그것들 모두에 대한 무자비한 지배자였다. 히틀러는 그의 식탁 담화에서 종종 다른 무엇보다도 “지도자 국가(Führerstaat)”가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가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 지도자는 선거 혹은 만장일치에 의한 선출 후에는 국민의 지지를 체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에도 법적 혹은 기타 군에 의하여 도전 받을 수 없는 일종의 최고 권위를 갖는다. 그러한 지도자 국가는 “몇 세기 동안이라도 존속 가능하다.” *Ibid.*, pp. 26~27.

하는 데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한때 소련에서는 독재자 개인보다는 당이 공산당이 궁극적 권력을 행사한다든가 정치국 같은 소규모의 당 기관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다. 동일하게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권력도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장군들에게서 단순히 파생했다거나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은 이러한 집단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문헌상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이들은 그들 국가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다. 그들의 의사는 결정적이었으며 그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과거의 독재 국가에서 보다 한층 더 완벽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¹³⁾ 이들은 각각 당을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당의 제도적 특성을 파괴하고 그것을 굴복시켜 가능한 한 당을 그 자체의 정치적 생명을 갖고 있는 계층적 제도로부터 자신들에게 순종하는 지지자집단으로 변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어느 경우에도 그들의 목적은 모든 당원이 지도자에게 의존함으로써만 각각의 권력과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여한한 의미에서도 제도로서의 당이나 당 내의 각각의 직무 등의 권위와 위신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경우 1929년 12월 50회 생일을 전후해서 좌파 우파할 것 없이 자신의 반대 세력을 모두 패배시켰다. 이후 그는 보즈트(Vozhd : 영도자)로 불리었고 소련의 각종 신문과 출판물, 그리고 심지어 이전의 정적들조차 앞다투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역사가 다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겔러와 네크리츠는 이러한 현상을 ‘기억의 국유화’로 규정했고 바로 이 때문에 소련의 지적 풍토는 급속히 황폐화되기 시작했다.¹⁴⁾ 소련에서 지도자 국가 현상은 1936~1938년의 대숙청을 계

13) C. J. Friedrich & Z. K.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second ed., p. 31.

14) Jeffery Hosking, *A History of the Soviet Union*, 김영석 옮김, 『소련사』(서울: 홍성사, 1990), 187~188쪽.

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스탈린은 대숙청을 통해서 제도로서의 당이나 국가기구의 지배를 물리치고 절대적인 개인독재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는 권력 장악 이후 숙청을 끝낼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해서 시종일관 레닌적 공산당을 독재자 개인의 정당으로 변질시켰다.

스탈린은 당과 정부기구 같은 정규적인 지배기구보다는 개인 정보원과 정보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당은 보안기관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당 내의 권력 핵심기관인 서기국조차도 스탈린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개인적 서기국에 의해 무력해졌다. 말하자면 공식적 지배 도구인 당이 일 개인에게 종속되어 버린 것이다. 이 시기에 스탈린은 당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당중앙위원회도 거의 소집되지 않았다. 샤피로에 의하면 스탈린 치하에서 국가기구는 ‘지도자’ 개인의 정책을 실천에 옮길 경우에 한에서만 이용될 수 있었다. 당조차도 스탈린이 개인적 지배를 주장함으로써 지배의 제도적 성격을 상실했다.¹⁵⁾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차 대전 이후 스탈린의 소비에트화정책에 의해 공산화된 동구와 북한은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를 그대로 모방했다. 이들 국가의 지도자 및 체제 자체가 사실상 스탈린에 의해 임명, 부과된 것이기 때문이다.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는 전체주의적 현상의 현격한 퇴조, 즉 탈스탈린화(de Stalinization)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즉, 지도자의 쇄퇴와 집단지도체제의 등장, 테러의 감소, 지배기구로서의 당의 제도적 부활, 당기구와 국가기구의 기능 분화, 이데올로기의 쇄퇴, 제한적 다원주의와 집단 간 갈등과 같은 변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비교 공산주의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전체주의적 접근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⁶⁾

15) Leonard Shapiro, *Totalitarianism*, pp. 69~70.

16) 전체주의 접근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주의란 용어 자체가 냉전적 개

그러나 북한은 동구의 사회주의권 국가들과는 달리 스탈린 사후 오히려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가 점점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 사후에 오히려 전체주의 국가의 가장 특징적 면모인 지도자 국가(수령 국가)를 공고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령 국가’는 북한의 역사 문화와 접목됨으로써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따라서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북한의 수령 중심 당-국가체제, 특히 김일성 유일사상체제가 확립되고 우상화가 본격화된 이후의 당-국가체제, 그리고 김정일 시대의 당-국가체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맥코맥(G. McCormack)은 북한의 국가 성격을 다섯 가지 모델, 즉 사회주의 국가, 유교적·봉건적 왕조 국가, 유격대 국가, 코포라티즘 국가, 전체주의 국가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는 북한 국가 성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모델은 전체주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¹⁷⁾

맥코맥은 고전적 전체주의론을 약간 수정한 기든스(A. Giddens)의 전체주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고 있다. 기든스는 전체주의 지배의 특징으로서 ① 감시 활동의 중시(국민에 관한 정보 수집, 서류 작성), ② ‘도덕적 전체주의’: 정치공동체로서 운명을 공유한다는 역사 의식, ③ 테러: 경찰력의 극대화(이것은 산업 전쟁과 재산 압류 수단의 임의 처리와 직결됨), ④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지도자의 전문적인 군사 능력이 아니

념으로서 특정 정치체제의 가치를 낮추거나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둘째 스탈린 사후 소련 및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유사한 체제간의 차이점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Lenard J. Cohen & Jane P. Shapiro, “Introduction: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L. J. Cohen, Shapiro(ed.),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New York: Anchor Books, 1974), pp. xxv-xxviii; Shapiro, *Totalitarianism*, pp. 105~118 참조.

17) Gavan McCormack,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1993), pp. 41~48.

라 대중지지의 획득이 중요)를 제시하면서 그 중에서도 개인 지도자를 전체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인 지도자는 다양한 국가기구, 예컨대 사법부, 의회에 분배되어 있는 권력을 한 손에 장악하게 된다. 권력 장악은 부분적으로 테러에 의해 실현되며 반대 세력을 철저히 숙청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러나 기든스는 전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지지이며 테러는 지배의 토대이기보다는 다만 ‘일탈자’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⁸⁾ 맥코맥은 스탈린 사후 북한처럼 전체주의적 지배 모델이 딱 들어맞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 사회만큼 철저히 공식 교의를 주입시켜 자발적인 성장 공간을 빼앗아 버린 곳은 없다. 요컨대 북한은 철저한 감시와 테러, 그리고 국가 의식을 통한 대중동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혼합된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인 것이다.¹⁹⁾

2) 차우체스쿠식 술탄체제

스탈린식 전체주의 모델과 더불어 북한 국가 성격의 특성의 일단을 비교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식 술탄 모델이다. 어떤 의미에서 북한과 루마니아체제는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와 술탄체제의 조합²⁰⁾이라고 볼 수 있다. 베버에 의하면 술탄체

18) Anthony Giddens, *Nation-State and Violence*, 진덕규 옮김, 『민족국가와 폭력』(서울: 삼지원, 1991), 348~349쪽.

19) Gavan McCormack, “Kim Country : Hard Times in North Korea”, p. 46.

20) 전체주의와 술탄체제의 조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드문 경우만은 아니다. 조위트는 여러 레닌주의체제의 세습주의적 속성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 그의 견해로는 소련과 루마니아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전에 강력한 세습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또한 1957년부터 1965년까지 루마니아 공산당에서도 술탄주의적 세습주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Kenneth 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s*

제(Sultanistic regimes)는 극단적인 형태의 세습주의적 성향을 갖는다. 세습 국가는 통치자 개인 또는 그의 가족의 권위에서 연유하는 고도로 집중화된 권력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세습 국가의 통치자는 행정기구를 지배하고 정치적 권위를 규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여러 방식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에게 부과한다. 정치 엘리트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찾는다.²¹⁾ 이 체제하에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혼용되며 법과 제도보다는 개인 및 그 일족 중심의 지배가 보편화된다. 술탄적 정치체제는 술탄 개인의 영역인 것이다. 또한 이 체제하에서는 정교한 이데올로기보다는 매우 자의적인 상징 조작을 통한 지도자 개인에 대한 극단적인 칭송이 보편화된다.

주지하듯이 루마니아는 다른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다른 점이 많다. 린덴(Ronald H. Linden)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동유럽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불가피하게 포함시켜야 하는 경구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아닌 “루마니아는 제외하고”이다.²²⁾ 우선 루마니아는 동구 국가 중에서 시민사회 기반이 가장 취약하다. 루마니아에서는 국가기구에 자율적이거나 반자율적인 지위 상승의 통로가 없었다. 심지어 최고위 노멘클라투라도 집사처럼 고용되었고 부당한 처우를 받았으며 해고당했다. 1979년 11월 공산당 12차당대회를 계기로 루마니아는 차우세스쿠 일족 중심의 정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차우세스쿠의 부인인 엘레나(Elena Petrescu)는 명실상부한 권력의 2인자였으며 아들과 동생들 또한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시킴으로써 루마니아는 이른바 일족 사회주의(socialism in

and National Development : The Case of Romania, 1944 ~ 1965(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Juan J. Linz &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 347에서 재인용.

21)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New York : Bedminster, 1968), pp. 1006 ~ 1069.

22) Ronald H. Linden, “Socialist patrimonialism and the global economy : the case of Roman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2(1986), p. 347.

one family) 내지 왕조 사회주의 국가(dynastic socialism)가 되어 버렸다. 차우세스쿠 일가가 당과 정부의 요직을 독점해 버렸고 절대적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티스마노누(Vladimir Tismaneanu)에 의하면 차우세스쿠는 당의 관료들을 모욕하고 시민들을 자신의 소유물인양 다루면서 절대 군주처럼 행세했다. 당의 지도적 역할은 총서기와 그의 가족의 절대 권력으로 대체되었으며 당과 정부기구(차우세스쿠 일족의 의례적 추인 기구(rubber stamp)에 불과했다. 특히 차우세스쿠의 아들 니쿠(Nicu)는 1983년 공산주의 청년동맹의 제1서기가 되었다. 이후 당중앙위원회 위원, 1984년에는 정치위원회의 후보위원이 되면서 권력 승계자로 알려졌고 그의 절친한 동료들도 당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²³⁾

한편 차우세스쿠에 대한 개인 우상화 작업도 강화되었다. 그의 독창적 사상을 칭송하기 위한 출판물이 쏟아져 나왔으며 사회과학, 윤리학, 미학에 관련된 모든 출판물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발전에 대한 차우세스쿠의 공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교향은 성지가 되었고 생일은 루마니아 최고의 명절이 되었다. 또한 그는 마르크스 교의의 최고의 정통적 해석자로 부각되었으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가장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었다. 아울러 그는 현 시기 외교의 천재, 루마니아인들의 가장 순수한 덕의 화신으로 격찬되었다. 피셔(Mary Ellen Fischer)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 어떤 루마니아 관료도 영감과 지침의 원천으로서 차우세스쿠의 개인적 통찰력과 지도력을 참고하지 않고서는 보고서나 글을 쓸 수 없었다는 것이다.²⁴⁾

이와 같은 루마니아의 전체주의와 술탄체제의 조합체제는 스탈린 사

23) Vladimir Tismaneanu, "Ceausescu's Socialism", *Problems of Communism*, Vol. 34(1985). pp. 60~66.

24) Mary Ellen Fischer, "Idol or Leader? The Origins and Future of the Ceausescu Cult", Daniel N. Nelson(ed.), *Romania in the 1980s*(Boulder, Cold. : Westview, 1981), p. 118.

후 반소 스탈린주의(anti-Soviet Stalinism)라는 다소 역설적 노선을 택함으로써 가능했다, 실제 스탈린 사망 이후 대부분의 동구 국가들은 후르시초프의 탈스탈린화정책을 수용하여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고 경제 제도와 운영 방식을 개혁했다. 그리고 개인 숭배와 일인 독재, 테러 및 공포 정치 등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루마니아와 북한은 소련의 탈스탈린화 요구를 거절하면서 스탈린식 발전노선을 고수하고 대외적으로도 소련으로부터 독자노선을 견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는 민족주의를 북한은 주체노선(주체사상)을 부각시킴으로써 개인 숭배와 1인 지배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었다. 박형중에 의하면 루마니아와 북한에서는 다같이 스탈린주의적 인민주의 권력 블록의 수립을 시도했다. 최고 지도자(수령과 Conductor)의 지도를 일반 대중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예컨대 대량의 공산당 입당, 반지식인 및 반기술 실무정책, 극단적인 토속적 문화정책, 개인 숭배, 민족주의의 극단적 강조 등이다.²⁵⁾

3. 비교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본 북한 국가체제의 특수성과 보편성

그렇다면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은 스탈린식 전체주의와 술탄체제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북한의 국가(체제)가 구소련을 비롯한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와 전혀 다른 특수한 성격(‘북한적 현상’)을 갖고 있다면 양 체제의 조

25) 박형중, “루마니아와 북한 :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51~52쪽.

합 모델만으로는 북한의 국가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많은 북한 연구가들이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을 신정체제, 유일지도체제, 유격대 국가체제, 수령(절대주의) 체제, 조합주의적 사회주의체제(가족적 조합주의), 군사국가체제 등으로 다양하게 개념화해 왔다.²⁶⁾ 북한의 국가 성격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북한체제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북한 국가체제의 전체주의체제로서의 ‘보편적 현상’을 간과하게 된다. 여기서 특수성을 강조하는 국가체제 모델들을 조합주의적 사회주의체제, 유격대 국가체제 수령체제, 군사국가체제 등 네 가지로 대별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1) 특수성을 강조하는 국가체제 모델

우선 커밍스가 제시한 조합주의적 사회주의체제 모델은 지배의 억압적 측면을 강조하는 전체주의 모델과 달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자발적 지지에 관심을 갖는다. 사실 조합주의는 자유주의에 대비되는 이념으로서 전자는 공동체주의적(communitarian) 사고인 반면 후자는 개인주의적(individual) 발상에서 시작된다. 그는 사회주의의 일반적 전제에서 보면 북한은 독특한 사회주의를 개척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북한 국가체제의 조합주의적 특성을 제시한다. 즉, 지도자(정통성과 이데올로기의 카리스마적 원천으로 작동, 아버지와 같은 존재, 북한 가족의 우두머리. 정체의 머리와 마음), 당(정체의 핵심부, 통치지와 피치자를 연

26)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113~124쪽; Gavan McCormack, “Kim Country: Hard Times in North Korea”, pp. 21~48 참조

결시키는 혈맥, 어머니 당), 사상(민족과 지도자의 상징인 주체사상), 가족(사회의 핵심 단위), 혁명(지도자의 전기, 그를 통해서 반세기, 그리고 그의 가족을 통해서 1세기에 미침), 안내자(지도자의 후손, 미래를 상징, 가족 세습원칙의 확립), 집단(당과 가족을 매개하는 사회조직), 세계(태양,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중심주의에 의해 구조화)가 상호 연결된 유기체가 북한 국가체제의 특성이라는 것이다.²⁷⁾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이 조합주의가 갖는 중후군들, 즉 유기체적인 유대, 비유와 모델로서의 가족, 과거 - 현재 - 미래를 연결짓는 커다란 사슬, 지도자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 가족 - 공동체 - 국가 속으로의 개인의 흡수, 정치에서의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와 문화에 있어서의 현대성, 위계 질서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커밍스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조선 왕국의 은둔성과 유교의 영향을 들고 있으며 조합주의는 가족주의와 혈통 의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어필한다고 주장한다.²⁸⁾

기실 조합주의는 강력한 대가족제도나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정당화되며, 이는 유교적 배경을 지닌 사회에서 더욱 호소력이 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유교적 사회구성체의 전통적 경험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족 중심적인 사회 구조를 토대로 혈연적 조합주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대중 동원이 성공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 헌법은 가족을 사회의 핵심 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회문화에서도 결혼은 여전히 큰 행사이고 북한 정권은 이러한 가족 중심적인 가치체계를 파괴하려 하지 않았다.

요컨대 커밍스는 북한의 국가체제와 권력 조직을 혈연적 조합주의의 성격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의 국가체제는

27)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역음, 『한국현대사 연구 1』(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342~343쪽.

28) 위의 글, 343쪽.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의 핵심으로 출발하여 자신의 가족, 조선로동당과 빨치산파, 관료, 지식인과 전문인, 사무원, 프롤레타리아트, 농민이²⁹⁾ 하향식 위계 질서로 형성되어 있는 유교적 조합주의 성격이 강한 사회구성체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계급에 기초한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민이 함께 하는 조합주의적 방식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와다 하루끼(Wada Haruki)의 유격대국가체제 모델이다.³⁰⁾ 이 모델은 소련형 국가사회주의를 토대로 북한의 국가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국가사회주의는 소련형 사회주의 건설의 모델이 되어 전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반적 형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체제의 핵심을 공산당, 국가, 사회단체가 일체화된 구조라고 파악한다. 국가사회주의는 이 3자가 일체화되어 이루어진 공적 주체가 정치·경제 일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와다에 의하면 유격대 국가체제는 바로 이러한 국가사회주의체제가 이차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는 유격대 국가를 김일성이 유일한 최고 사령관이고 북한 인민 전체가 유격대원화한 것으로 보면서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격대 국가체제는 이후 영도예술과 가족 국가론, 전통적 국가론에 의해서 보강되었다. 가족 국가론에서는 수령=아버지, 당=어머니, 인민대중=자식이라는 등식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후 이것은 일심단결, 대가정, 충효의 결합을 강조하고 김일성=할아버지, 김정일=아버지라는 확대된 가정의 이미지를 지닌 전통적 국가론으로 대체되었다. 이 모델은

29)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엮음, 『한국현대사 연구 I』, p. 352 참고.

30)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成立と展開”, 『世界』, 1993年 10月號; 『歴史としての社會主義』(東京: 岩波書店, 1992)를 참조. 유격대 국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 소개와 비판에 대해서는 이종석, “‘유격대국가론’의 성과와 한계: 와다 하루끼의 논의에 대한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2호(1994), 291~307쪽 참조.

일견 커밍스의 가족적 조합주의론과 유사한 점도 있다.

세번째는 수령제 모델이다. 수령제 모델은 수령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몇 가지 모델로 세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수령제 개념으로 북한 국가체제의 성격을 분석한 선도적 연구로서는 스즈키 마사유키의 수령체제론을 들 수 있다. 그는 수령제를 “수령의 영도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와 “사회주의체제의 특징을 지닌 동시에 당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추대한 체제”로 정의하고 있다.³¹⁾ 전자는 김정일 후계체제와 관련된 것이고 후자는 지도자 개인의 절대 권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스즈키의 수령제 국가체제의 핵심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즉 수령의 영도 아래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정연한 조직체제와 규율을 제도와 사상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수령이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 최고 뇌수이고 심장이며 당과 계급, 대중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유일한 중심”³²⁾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령이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영도하기 위해 당을 조직하고, 당은 수령의 영도를 보장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혁명의 참모부인 것이다. 따라서 수령 이외에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권위도 수령에게서만 나온다. 즉, 유일사상체제의 확립이 다른 아닌 수령제 국가체제의 확립인 것이다. 이 수령체제는 노동당 당규약(1970년 당규약 및 1980년 당규)에 “당 안에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주석제와 비서국제를 도입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스즈키는 이러한 수령제를 직접 설명하고 정당화시키는 이론이 주체사상 중에서도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지적하

31) 스즈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중앙일보사, 1994), 20쪽, 268쪽.

32) 위의 책, 153쪽.

고 있다. 혁명적 수령관에서는 주로 수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논리 구성, 노선의 제시와 조직 동원이라는 수령과 대중 사이의 기본적 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다.³³⁾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수령과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함께 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스즈키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뇌수’로서의 수령, 수령과 인민을 결합시키는 ‘신경’ 및 ‘혈관’으로서의 당,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인민 대중을 삼위일체로 하는 사회유기체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생명체의 중심은 수령이다. 유기체의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은 혁명의 지도자인 수령에 의해 각 개인에게 부여되고 각 개인은 수령에 의해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형성하고 진정한 존재, 즉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된다.³⁴⁾

북한은 이러한 수령제를 강화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수령 숭배론을 내세워 김정일의 유일적 지배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일치시켰다. 또한 수령과 대중을 혈연적으로 연결시켜 수령을 혈연 집단의 아버지로 당을 어머니로 하는 일종의 가족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엄격한 계층 질서, 즉 수령을 중심으로 그 친족, 주위에 항일투사 및 한국전쟁 영웅과 혁명 유가족, 당·정·군 간부, 그리고 인민이라는 동심원 모양의 계층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스즈키는 이러한 형태의 모델은 항일빨치산 집단이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수령제가 부분적으로는 유격대 국가체제와 유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³⁵⁾

스즈키가 북한의 국가체제의 성격을 수령제로 규정한 이후 이 모델을 수정, 보완한 연구들이 나왔다.³⁶⁾ 가장 대표적 연구로서는 이종석의

33) 위의 책, 148~157쪽.

34) 위의 책, 166쪽.

35) 위의 책, 270~274쪽.

36) 최성은 북한 국가체제를 스탈린적 당-국가체제와 봉건적 수령제의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성, “수령체제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고려

유일체제 모델이다. 그는 스키의 모델이 북한체제 작동의 제도적 메커니즘이나 사회문화적 조건 등을 규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을 유일체제로 개념화하면서 이 체제야말로 “북한 사회의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북한적 현상’이라고” 강조한다.

이종석은 유일체제의 특징적 현상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³⁷⁾ 즉, 첫째 수령의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제, 둘째 동원화되고 군사화된 사회체계를 자신의 강력한 재생산 기반으로 삼고 있는 체제, 셋째 자신을 합리화하는 담론과 행위 양식들을 재생산하는 광범한 사회적 체제, 즉 유일사상체제를 갖고 있는 체제, 넷째 문화적으로 광범한 개인 숭배 현상을 동반하는 체제이다. 그는 유일체제는 지배의 강제적 기제뿐만 아니라 자발적 동의기제를 구비한 체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종석도 스키와 마찬가지로 이 체제의 이론적 기초로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³⁸⁾을 들고 있다.

끝으로 북한 국가체제 성격 특수성을 강조하는 모델은 군사국가체제론이다. 서대숙은 김정일의 정치체제는 북한에서 군인 지상정치체제가

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3. 김광용은 북한의 국가체제를 수령, 당, 대중의 일심동체를 강조하면서 당 - 국가 시스템 위에 수령을 추대한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위로부터의 통제와 아래로부터의 지지의 결합으로 북한의 수령제 정치체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5). 김연철은 당 - 국가체제에서 최고 지도자의 인격화된 지배가 관철되는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1953~1970”(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6). 정우곤은 당 - 국가체제 위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이데올로기 권력으로 수령제를 규정하고 있다. 정우곤, “북한사회주의 건설과 수령제의 형성에 관한 연구, 1948~1972”(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7).

37)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210~211쪽.

38) 위의 책, 212~220쪽.

출범했음을 말해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 체제는 군국주의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역 군인들의 정치 개입이나 그들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제도화한 정치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⁹⁾ 한마디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노동당이 아니라 군부가 통치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당-국가체제에서 기형적인 군-정-당체제로 바뀌었다.

와다 하루키 또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유격대 국가가 아니라 정규군 국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북한은 군대가 곧 인민이고 국가이며 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 사령관인 김정일이 북한의 모든 것이 되는 정규군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⁴⁰⁾ 이 밖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북한은 당면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체제생존을 위해서 전통적인 당-국가체제를 형식화시키면서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대근은 북한 군사 국가화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논거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⁴¹⁾ 첫째, 군부 중심의 현지도, 경제 건설 등 군부 역할의 확장, 군 중심체제 이데올로기 강화, 주석단 내 군부 지도자의 부상, 최고 사령관 및 국방위원회에 의한 통치 등 인민군의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현상, 둘째 당대회, 당중앙위원회 당 정치국 등 당의 주요 정책결정기구가 개폐되지 않고 있는 현상, 셋째 인민군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와 노동당의 약화로 노동당보다 군부가 우위에서는 현상, 넷째 이 결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당-국가체제에서 군대가 노동당과 함께 혹은

39)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 을유문화사, 2000), 223쪽.

40) Haruki Wada,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Jae Kyu Park(ed.),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Seoul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9), pp. 69~81.

41)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그 한계"(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2000), 10~11쪽.

단독으로 통치하는 군 - 당체제, 당 - 군체제로의 전환 현상이다. 양현수는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의 변화(강화)를 주목하는 연구자들의 주장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⁴²⁾ 첫째, 북한의 국가기구 및 당기구에서 북한군의 비중과 서열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 둘째 김정일의 북한군에 대한 우대정책, 즉 대규모 승진 인사, 빈번한 군부대 방문과 격려발언 현상, 셋째 1998년 개정헌법에서의 변화, 즉 국방위원회의 확대 개편 현상 등이다. 요컨대 북한은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군 중심의 지배와 건설 및 통제체제가 고착되어 이른바 선군정치체제가 정착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여타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 북한 국가체제의 보편성 : 전체주의체제와 술탄체제의 조합

사실 북한 국가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국가(지도자)와 사회(인민 대중)와의 매개 양태가 여타 사회주의권 국가들, 특히 억압 위주의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와 다르다는 점이다. 커밍스의 조합주의 모델, 와다의 유격대 국가 모델, 그리고 수령제 모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도자와 사회를 매개시키는 자발적 동의 내지 순응기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 모델로는 북한의 국가체제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국가나 지도자 개인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순응)와 동원기제, 즉 이데올로기, 정치적 담론, 선전·선동, 정치 학습, 교양체계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제는 북한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들인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42)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 ‘군사 국가화’ 논의 비평”(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9. 9. 18), 9~14쪽.

전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지지이며 테러는 지배의 토대이기보다는 ‘일탈자’에 대한 규제 수단인 것이다.

설사 북한에서 국가가 사회를 포섭하는 방식이 자발적 동의 내지 순응적 요소가 있다고 해도 노동당의 사회통제 메커니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이것이 곧 북한체제를 전체주의체제와 구분해 주는 특성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어도 포섭 방식에 있어서 자발적 동의기제가 확립되었다면 유례 없는 폐쇄체제의 유지와 감시 및 통제 현상은 설명하기 어렵다, 현성일에 의하면 북한의 주민통제 및 감시체계는 단순한 피라미드식 종적 체계가 아니라 감시자와 감시 대상, 통제하는 사람과 통제 대상이 따로 없는 모든 고위층과 주민들의 상호 감시와 통제, 상호 견제의 복잡하고 치밀한 조직 구조로 이루어졌다. 북한에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감시도 받지 않고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김정일뿐이다. 바로 이러한 통제 구조와 감시체계는 헌법이나 당규약에서가 아니라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의해 합법화되고 있다.⁴³⁾ 10대 원칙⁴⁴⁾의 내용과 북한의 통제 및 정치범 수용소체제로 미루어 보면 북한은 스탈린식 전체주의국가체제의 전형인 것이다.

43) 현성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계에 관한 연구: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18쪽.

44) 10대 원칙의 내용(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체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한다. ② 수령을 충성으로 우러러 받들어야 한다. ③ 수령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④ 수령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수용하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⑤ 수령의 교시 집행에서는 무조건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⑥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⑦ 수령에게 배워서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가져야 한다. ⑧ 수령으로부터 부여된 정치 생명을 소중히 지키고 수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대해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⑨ 수령의 유일한 영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시종일관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 ⑩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하여 완성시켜야 한다.

이종석은 자신이 제안한 유일체제는 1인의 절대 권력자가 물리적 강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운용하는 지도체제 일반을 가리키는 단일지도체제와는 달리 힘뿐만 아니라 자신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와 사회, 문화적 정서까지도 스스로 재생산하는 체제임을 강조한다.⁴⁵⁾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나 전체주의체제를 막론하고 지배의 수단으로 강제와 자발적 동의기제를 갖추고 있다. 즉, 전체주의체제는 강압적 수단만을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자발적 동의기제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북한국가체제의 특성이 될 수는 없다.

두번째, 신정체제, 수령(절대주의)체제, 유일지배체제란 용어가 시사하듯이 지도자 1인의 절대 권력과 철저한 개인 숭배 현상이 독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스탈린식 전체주의와 술탄체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주의 국가의 본질적 특성은 지도자 국가라는 데 있다. 특히 스탈린은 대숙청을 통해서 제도로서의 당이나 국가기구를 무력화시키고 절대적인 지도자 국가체제(수령 국가)를 구축했다. 스탈린의 개인 권력은 지배력, 범위, 토대, 정당화의 양식이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지배 권력의 무제한적 성격, 정밀과학, 철학, 언어학, 문학, 예술 등 인간 활동의 전 분야에서 절대적 권위의 요구, 권력 수단의 다양화, 직책으로부터 오는 정통성의 요구로부터 개인적 자질로부터 오는 정통성의 요구에로의 이전 등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권력체계 모두에 공통되는 현상이다.⁴⁶⁾

사실 1930년대 이후부터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수령으로서 역할과 신비화 작업이 계속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때 북한 국가체제의 특징으로

45)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121쪽.

46) 정성장, “북한체제와 스탈린체제의 비교”, 오일환 외, 『현대북한체제론』(서울: 을유문화사, 2000), 116쪽.

강조되고 있는 수령체제의 특징적 면모는 후계체제의 특성을 제외한다면 기실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의 현상인 것이다.

세번째 요인은 권력의 부자 세습 현상이다. 물론 북한은 사회주의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을 대물림시켰다. 따라서 이 현상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성장은 북한식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스탈린식 수령독재체제를 본질로 하면서도 그것과 크게 구별되는 점은 후계자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해 주는 체계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사실 수령의 유일적 영도(수령제)를 보장하는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의 핵심은 마지막 항목인 수령 승계의 원칙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수령 체제의 한 면모인 권력 세습 현상이 ‘북한적 현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일회적 현상을 체제를 구분하는 배타적 특성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조위트(Kenneth Jowitt)에 의하면 소련과 루마니아가 1953년 스탈린 사망 이전에 강력한 세습적 경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술탄주의 형태의 세습주의가 적어도 1957년부터 1965년까지 루마니아 공산당의 지배적 현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⁸⁾ 특히 차우세스쿠 치하의 루마니아는 그가 권력을 계속 유지했다면 북한과 같은 권력의 부자 세습이 가능했을 것이다. 즉, 니쿠는 루마니아의 김정일이 되었을 것이다.

네번째 요인은 선군정치 내지 군사 국가화 현상이다. 북한에서는 ‘선군정치’를 “정치사에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독창적인 주체의 정치”⁴⁹⁾

47) 위의 글, 119쪽.

48) Kenneth Jowitt,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Case of Romania, 1944~1966*(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p. 190~197.

49)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2쪽.

로, 김정일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이집트 대통령이 내왔던 군사총통제나 1970년대까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존재했던 군정과는 구별되는 군중시의 국가정치체제”이며 “국가기구자체를 군사체제화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체제에서 군사를 우선시하고 군사 분야의 지위와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권능을 규제한 정치체제”⁵⁰⁾인 것이다. 그리고 선군정치는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근본 특징으로서는 “당과 군대, 인민을 옹계 결합시켜 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불패의 위력한 정치 방식”⁵¹⁾임을 들고 있다. 말하자면 지난 시기에는 노동자 농민을 혁명과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웠다면 김정일 시대에 들어 와서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삼아 북한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자들은 군 중시 또는 군의 영향력 증대 현상에 주목해서 기존의 당 - 군 관계에 변화가 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군 - 정 관계의 변화는 의미할 수 있어도 당 - 군 관계의 변화는 아니다. 1998년 9월 헌법개정된 헌법에서 북한은 국가기구체제에서 국방위원회와 국방위원장의 지위와 권능을 격상시켰다. 즉, 국방위원회의 구성, 임무와 권한에 있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지방주권기관들, 사법검찰기관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당과 군대가 서열상 누가 선차나 할 때 당이 앞자리에 놓이며 따라서 군대는 그 위상에서 당군으로 자리 매김 된다”.⁵²⁾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상호 관계로부터 군대는 당의 명도를 생명선으로 하며 당

50) 위의 책, 24쪽.

51) 고상진,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근본 특징”, 『철학연구』, 1호 (1999), 17~18쪽.

52)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50쪽. 필자가 2차례에 걸쳐 평양 방문시 면접한 북한 인사들도 한결같이 당 우위원칙론을 주장하였다.

의 영도를 받아야만 군력 강화도 역사적 사명 수행도 이루어 낼 수 있다”⁵³⁾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에서 군사국가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할 만큼 노동당의 위상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소련과 폴란드의 경우에도 전쟁 등 국가가 위기시에는 이른바 선군정치 현상이 나타났다. 예컨대 조국전쟁시 스탈린은 당의 기능과 권한을 현저하게 약화시켰으며 당중앙위원회도 소집하지 않았으며 당의 기능 자체를 군대의 기구들이 담당했다. 또한 정치국과 비서국의 일부 핵심 인물만으로 구성된 국방위원회(State Defense Committee)를 구성해서 주요 업무를 처리했다.⁵⁴⁾ 이 위원회는 현재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조직과 구성 및 권한 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이 시기에 소련의 군대가 당을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폴란드의 경우 1981년 솔리다리티(Solidarity) 문제로 당내 갈등과 위기가 심화되었을 때, 야루젤스키가 쿠데타의 형식을 빌어 당과 정부 권력을 장악한다. 이때도 군이 당을 지배했다기보다 ‘군복을 입은 당(party in uniform)’이 전면에 나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⁵⁵⁾ 이렇게 볼 때 북한의 선군정치는 북한만의 특수한 군가 국가체제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김정일)를 정점으로 한 당 중심의 군중시체제일 뿐이다.

53) 위의 책.

54) Richard Sakwa, *Soviet Politics : An Introduction*(London : Routledge Kegan Paul, 1989), Chap. I, II 참조.

55)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Amos Permuter & William LeoGrande, “Party in Uniform :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 (1982), pp. 778~789 참조.

4. 결론

지금까지 북한 국가체제의 성격을 비교 사회주의적 맥락에서 검토, 분석하였다. 그것의 핵심적 내용은 스탈린식 전체주의 또는 전체주의와 스탈린체제 모델의 조합으로 북한의 국가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적합성 있는 모델인가 아닌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는 북한국가체제가 갖고 있는 보편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스탈린식 전체주의 모델이라는 사실이다.⁵⁶⁾

한동안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특히 스탈린 치하의 소련의 국가체제를 논의할 때 전체주의 모델은 전가의 보도처럼 원용되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스탈린 사후의 소련 체제의 내부 변화의 역동성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가치 부하적 속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그 이론적 적실성이 의문시되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이후 탈스탈린화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북한, 그리고 스탈린식 전체주의의 특성인 수령 개인의 절대 독재 현상을 고려한다면 이 모델은 북한의 국가체제를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북한 국가체제의 특징적 요소로 제기된, 즉 지도자 국가 현상, 대중의 지지, 집단주의 현상 등은 기실 전체주의 국가체제 일반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사실 일부 연구자들이 북한 국가체제의 특수성으로 강조해 온 일련의 현상들, 즉 자발적 동의 내지 순응의 기제, 철저한 1인 독재와 개인 우상화, 권력 세습, 선군정치 현상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형중은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사회주의체제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북한에

56) 북한의 국가체제의 특성을 시종 전체주의 모델로 분석, 설명하고 있는 연구로서는 오일환,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의 현황”, 오일환 외, 『현대북한체제론』, 15~79쪽 참조.

특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것의 원인을 북한에 특수했던 여러 상황, 즉 지도자의 성격과 개인적 경험, 북한 사회주의 건설과정의 여러 역사적 조건과 배경, 한국의 정치적 전통 등과 관련시켜 설명하면서 그것이 북한에만 특수한 것임을 단정”⁵⁷⁾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하는 ‘북한적 현상’들은 사회주의의 유전적 특성이 북한이라는 조건에서 구체화되어 발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⁵⁸⁾

이렇게 볼 때 북한의 국가체제는 특정 시점이나 부문에서는 이른바 ‘북한적 특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기실 스탈린식 전체주의나 술탄체제라는 보다 일반적인 비교 사회주의체제의 맥락 속에 포함할 수 있는 특수성이지만 완벽한 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배타적 특성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체제가 갖고 있는 보다 보편적 현상은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와 술탄체제의 조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북한의 국가체제의 성격을 이 두 체제의 조합으로 규정한다면 이러한 체제를 경험한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에서의 위로부터의 체제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고상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근본 특징”, 『철학연구』, 1호(1999).

57) 박형중, “북한정치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184~185쪽.

58) 위의 글.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평양 : 평양출판사, 2000).

<2차 자료>

김광용,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한양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5).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1953~1970”(성균관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6).

박형중, “북한정치연구에서 ‘북한 특수성론’”, 『통일문제연구』, 제27호 (1997).

_____, “루마니아와 북한 : 사회주의 주변부의 스탈린주의체제에 대한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제7권 1호(1995).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김동춘 엮음, 『한국현대사 연구 I』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88).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 을유문화사, 2000).

스즈키 마사유키,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서울 : 중앙일보사, 1994).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 ‘군사 국가화’ 논의 비판”(1999년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 논문, 1999, 9. 18).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그 한계”(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2000).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2000).

_____, “‘유격대국가론’의 성과와 한계 : 와다 하루끼의 논의에 대한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2호(1994).

정성장, “북한체제와 스탈린체제의 비교”, 오일환 외, 『현대북한체제론』

-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 정우곤, “북한사회주의 건설과 수령제의 형성에 관한 연구, 1948~1972”
(경희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7).
- 최성, “수령체제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작동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1993).
- 현성일, “북한 노동당의 조직구조와 사회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 당의 유일사상체제 확립의 10대 원칙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和田春樹, “遊撃隊國家の 成立と 展開”, 『世界』, 10月號(1993).
- _____, 『歴史としての社會主義』(東京 : 岩波書店, 1992).
- Cohen, Lenard J. & Jane P. Shapiro, “Introduction :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L. J. Cohen & J. P. Shapiro(ed.),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New York : Anchor Books, 1974).
- Fischer, Mary Ellen, “Idol or Leader? The Origins and Future of the Ceausescu Cult”, Daniel N. Nelson(ed.), *Romania in the 1980s* (Boulder, Cold. : Westview, 1981).
- Friedrich, C. J. & Z. K. Bre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second ed.(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5).
- Furtak, Robert, *The Political Systems of Socialist State : An Introduction to Marxist-Leninist Regimes*(Brighton, Sussex : Wheatsheaf Books, 1986).
- Giddens, Anthony, *Nation-State and Violence*, 진덕규 옮김, 『민족국가와 폭력』(서울 : 삼지원, 1991).
- Gerth, H. H. and C. Wright Mills(eds.), *From Max Weber*(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6).
- Hosking, Jeffery, *A History of the Soviet Union*, 김영석 옮김, 『소련사』(서

울 : 홍성사, 1990).

Jowitt, Kenneth, *Revolutionary Breakthroughs and National Development : The Case of Romania, 1944 ~ 1966*(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Linz, Juan J. &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Linden, Ronald H., "Socialist patrimonialism and the global economy : the case of Romania",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0, No. 2(Spring 1986).

McCormack, Gavan, "Kim Country : Hard Times in North Korea", *New Left Review*, No. 198(1993).

Modelski, George, *The Communist International System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Vol. III.

Permuter, Amos & William LeoGrande, "Party in Uniform : Toward a Theory of Civil-Military Rel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6, No. 4(1982).

Sakwa, Richard, *Soviet Politics : An Introduction*(London : Routledge Kegan Paul, 1989).

Sartori, Giovanni, *Party and Party Systems : A Framework for Analysis*(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Schapiro, Leonard, *Totalitarianism*(New York : Praeger, 1972).

Tismaneanu, Vladimir, "Ceausescu's Socialism", *Problems of Communism*, Vol. 34(1985).

Tucker, Robert(ed.), *Stalinism ; Essays in Historical Interpretation*(New York : W. W. Norton & Co. Inc., 1977).

Wada, Haruki, "The Structure and Political Culture of the Kim Jong Il

Regime : Its Novelty and Difficulties”, Jae Kyu Park(ed.), *North Korea in Transition and Policy Choices : Domestic Structure and External Relations*(Seoul : Kyungnam University Press, 1999).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New York : Bedminster, 1968).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 Comparative Perspective

**Wan Kyu Choi (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This article purports that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is not a unique form of socialism, but a strand of a combination of Stalin-style socialism and sultanism. Scholars have traditional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n regim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such ideologies as Stalinism, totalitarianism, and sultanism are suitable methods to analyze the North Korean system.

I find that the Stalinist system most closely explains the North Korean system. The totalitarian model often incorporates the factors embodying socialism, particularly under the Stalinist socialist system. However, this model was doubted since it could not explain the dynamic internal changes after Stalin's death and thus there were criticisms of a value-laden model that lacked preciseness.

Since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 there has never been a time that Stalinism has not been an influencing factor in North Korea. To this day, this model is still a valid way to explain the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regime, in particular the presence of absolute autocracy, which also existed in Stalinism. Moreover, the North Korean regime's particular characteristics such as autocracy, support of the populace, and collectivism are general traits that are also emphasized in totalitarian regimes.

However, many scholars have emphasized these factors as particular to the North Korean system. Scholars who support this thesis state that the general factors of the socialist system are unique to North Korea. The reason for this uniqueness is the special conditions that inherently embody North Korea, such as the historic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socialist state-making, traditional Korean politics, leadership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experience. Park Hyung Joong disagrees with this perspective, emphasizing that the North Korean situation has its genealogical roots in socialism, does display certain unique characteristics, but still shares the same basic foundations nonetheless. I do not deny that there is a certain uniqueness in the North Korean system, but it is not exclusive enough to be identified as a different form of socialism since the structure tends to follow the context of Stalin-style socialism.

To sum up, the general situ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can be explained as a combination of Stalin-style socialism and sultanism. From this perspective and through first-hand experience, systemic factors indicate the improbability of a transformation process originating from the top-level sectors in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 Regime, Sultanism, Stalinism, Totalitarianism.